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8년 10월 5일(금) ..(음력 8월 26일).. Пятница 5 октября 2018 г. № 39(11680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10월 1일은 러시아 노인들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공동체〉포럼에서 극동지역의 발전 문제 논의

지난 3일-4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러시아연방 사회원의 주최로 <공동체>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의 주제는 <극동지역: 발전 문제>이다. 이를 위해 모스크바 지역에서 50명, 극동지역에서 30명이 사할린을 찾았다. 포럼에는 사회활동가, 사업가, 교육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일반인 등이 참가했다. 주제별 5개 분야(경제, 사회, 사람들, 환경, 자연)로 나누어 섹션별(극동지역 경제정책, 애국사회단체 역할, 극동지역의 인재 잠재력, 사회복지시장에 대한 비영리단체들의 접근 등)로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극동지역은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부분이며 최근에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고, 새로운 개발 기관이 설립되고 있지만 아직은 발전 단계가 아니다."라고 포럼 기조회의에서 러시아연방 사회원 왈레리 파제예브 사무국장이 언급했다.

###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 대행으로 논나 라브리크 부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알렉세이 사마린 사할린주 문화부 장관에서 사임했다. 주문화부 홍보실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장관 대행으로 논나 라브리크가 부임했다.

라브리크 장관 대행은 1986년부터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할린국립대학교 역사학을 전공하고 사할린주문서보관소, <오락영화기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문화국에서 근무했다. 사할린주문화부에서 2016년 4월부터 근무했으며 2017년 11월부터 주문화부 차관을 역임했다. 기혼. 자녀 2남.

### 사할린주한인협회 부회장으로 임 엘베라 교수 선출

지난 29일(토) 사할린주한인협회 긴급대표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 본회 정관 수정안을 채택하고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의 추천으로 협회 부회장으로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베라 한국어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고 전해졌다.

### 〈에트노스〉·〈하늘〉·마카로브 학생예술단 제주도로 초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서 <두루 나눔... 따로 또 같이>동포청소년 문화교류 모임이 개최된다. 이 행사는 (사)제주한문화네트워크 주최, 2018 해외동포 청소년교류 추진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후원 아래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사할린에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학생팀,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 팀, 마카로브시문화센터의 학생예술단이 초대되어 참가한다고 전해졌다. 일본 팀과 제주도 팀과 어울려 이들은 문화교류도 하고 제주 역사문화탐방도 할 예정이다. 행사 일환으로 문화활동가 심포지엄, 현장 세미나도 하고 7일은 참가 학생 공연이 펼쳐진다.

### 〈에트노스〉 학교 신 울리아 교사 비롯 교사 3인 <사할린주의 공훈 교사> 칭호 받아

10월 5일은 세계 교사의 날이다. 해마다 개최되는 이 행사의 목적은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집결시키고, 미래 세대의 요구가 교사에 의해 계속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세계의 교사의 날은 1백여 개국에서 기념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교사의 날을 전통적으로 10월의 첫 일요일에 기념했는데 몇 년전부터 10월 5일로 정해졌다.

지난 3일(수) 사할린 주정부에서 교사의 날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행사에는 교육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교육자 일부가 초대되었다. 이들을 사할린주 웨라 셰르비나 주지사 권한 대행이 환영하고 축하했다.

셰르비나 주지사 권한 대행은 "우리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3년간의 예산과 국가교육발전프로그램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달성하지 못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의 주요 문제는 2교대 교육이다. 2024년까지 각 학교에서는 2교대를 없애야 하며 이 시간에 보충교육을 진행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현재 이를 위해 11곳에서 학교와 학교 추가 건물이 공사 중"이라며 언급했다.



그는 교사 유치, 보충 교육 등의 문제도 발표했다.

이날 주지사 권한 대행은 교육계에서 큰 공로를 세운 교육자들을 포상했다. <사할린주 교육분야 공훈 근로자(교사)> 칭호를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코즐로와 엘레나교사,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 문화예술과 과장 신 울리아 교사, 네 웰스크구역 고르노사위드스크마을 학교 부교장 워토리아 스테베네와가 수상했다. 그 외 여러 분이 주지사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사진: 엔.골롭코와)

### 고려인 전문 연구기관, 전북대학교 <고려인연구센터> 설립

2018년 9월 30일 고려인 전문 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 <고려인연구센터> 개소식이 거행되었다.

한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고려인 연구자들은 지난 몇 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동안의 성과와 힘을 모으고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인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초대 연구소장인 전북대학교 사학과 윤상원 교수는 밝혔다. 그에 따르면 <고려인연구센터>는 "1백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구 소련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 - 고려사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구하는 한국의 유일한 전문연구소이며, 향후 고려인을 넘어 한인디아스포라 전체를 연구하는 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려인연구센터> 개소식에는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 독립기념관 이준식 관장, 국사편찬위원회 김우철 편사부장, 최재형기념사업회 전상백, 채양목 공동대표, 광복회 전부지부장 이강안, 안산의 고려인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 등 한국의 여러 대학 교수들과 고려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3면에 계속)

## 새고려신문

## 2019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10월 5일은 교사의 날

# 한국어교사 된 것은 옳은 선택이다

스미르노와 알렉산드라 올레고브나는 낯선하고, 예쁘고 진짜 러시아 스타일의 미녀다. 그녀가 한국어교사란 걸 알게 된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연해주 출신인 알렉산드라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과 사할린으로 이사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정착하여 제2리체이에서 공부했다. 제2리체이에서는 집중적으로 수학·물리학, 또는 생물학·화학을 배우고 있다. 알렉산드라의 부모는 막내딸이 인문학을 전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엔지니어, 어머니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일을 했기에 더욱 그렇다.

알렉산드라가 왜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원래 외국어에는 관심이 많았고 10학년 때부터 2년간 사할린한국교육원을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웠고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부를 잘해서 바로 입학했고 전공은 한국어교사였다. 운이 좋아서 1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4개월간 경주 동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한국어도 잘 모르고 한국어에서는 초보자 단계였다고 했다.

3학년 때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경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땐 물론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 문제는 문법이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말하기 실력이 부족했다. 언제나 올바르게 대답하기 위해 먼저 생각하고 대답을 하기 때문이다. 교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한국 대표단도 맞이하다 보니 점점 말하기 실력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알렉산드라는 통역·번역원으로 활동하

고 싶어했다. 4학년 때 사범실습을 했을 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 한 번 <꿈의 직업>이란 연설을 한국어교수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임 엘비라 한국어과장이 "너 정말 교사가 되고 싶은가?"라고 물으셔서 제가 "예"라고 대답했죠.

이때부터 알렉산드라의 운명은 임 엘비라 교수의 손을 의지하게 되었다. 임 교수는 한국어 수업이 없었던 제2김나지아 교장선생에게 연락하여 이 교육기관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수업을 제안하고 교사는 알렉산드라를 적극 추천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임 교수 덕분에 알렉산드라는 바로 제2 김나지아에 취직했다.

이렇게 그는 이미 3년째 한국어교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이 전공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하는 일이 마음에 들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현재 그녀가 이 김나지아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학생 수는 150명이다. 5-6학년 학생들은 제2외국어로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지만 점수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점수를 주지 않으니 일부 학생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그래서 보다 더 재미있는 수업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렉산드라 교사에 따르면 5-6학년 생들의 수업은 주로 놀이를 통해 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도 준비한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그림도 그리고, 고무찰흙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7학년생들과 10학년생들은 보충수업으로 한국어를 하고 있고 선택과목(과외 수업)이나 다름없다. 5-6학년생들이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7학년생

들과 10학년생들은 희망자만 공부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7학년생 중에는 희망자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이미 2년간 한국어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희망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6학년을 마친 학생 60% 정도가 다니거든요. 보충교육기관(예술학교, 음악학교, 스포츠학교 등) 수업도 있고, 과외 수업도 많고 학교 학생들이 요즘 많이 바빠진 세상에 60%는 많은 수치입니다."라고 스미르노와 선생이 설명했다.

그외 그는 1,2학년생들을 위한 유료 수업과정이 있다고 한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지만 학생들의 일정이 선생의 일정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기한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알렉산드라는 모교(제2리체이)에서 3년 전부터 과외수업을 하고 있다. 약 12명이 지속적으로 1주일에 한 번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서 다양한 교수법의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학생 대다수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로 넘친다고 한다. 스미르노와 선생의 제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다. 그저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 초보자임에도 열심히 준비해 항상 수상을 한다고 했다.

1년 반 전에 처음 말하기 대회에 참가할 때부터 알렉산드라 선생의 학생들은 우수한 한국어실력을 과시해왔다. 이들은 동양김나지아에서 개최하는 동양어문축제, 사할린국립대와 사할린주한인회가 공동으로 하는 경시대회, 그림 그리기 등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상을 차지했다.



학생들이 수상하는 것이 선생에게는 더 말할 것 없는 기쁨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어 이 사랑을 전하는 선생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고 한다.

알렉산드라 선생이 좋아하는 러시아 속담 "눈은 무서워 하는데 손은 하고 있다."("직번역)은 일은 태산인데 시작하면 스스로 다 하게 된다는 뜻이다. 알렉산드라는 이 말대로 자주 그렇게 한다고 한다. 할 일이 많아서 겁이 나는데 하다 보면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라는 교직이 마음에 들고, 1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여 현재 행복하다고 말한다. 부모님도 알렉산드라가 한국어교사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항상 예쁜 미소를 짓는 알렉산드라 교사에게 멋진 선생으로 성장하고 좋은 제자들을 배출해줄 것을 기원한다.

(배수신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 이모저모

### 올해 초부터 578 명이 사할린주를 떠났고 4157 명이 사망했다

사할린주 1월부터-8월까지 시기를 기준으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있었다. 신분등록사무소에는 다태아(쌍둥이)수 58명을 포함해 출생아 수는 4700명, 사망자 수는 4157명이 등록되었다. 자연적 인구감소는 87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같은 시기에 인구증가는 201명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아니와·돌린스크·쿠릴스크·노글리키·유즈노쿠릴스크 구역 총 6개의 지방자치 구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2017년 유사시기 사할린주에 혼인은 2625건, 이혼 1848건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혼인은 2376건, 이혼은 1854건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내무성 사할린주인민국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8월 기간 동안 사할린과 쿠릴열도로 이주한 인구는 14257명으로 그중 60.1%가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으며 14835명이 거주지를 이전했고 그중 77.6%는 이전에 등록된 거주지에서 말소됐다. 사할린주 내에서는 주민 5742명이 주거지를 이전했으며, 거주지 이전으로 578명이 감소했다.

### С начала года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ехали 578 человек, умерли 4157

За январь — авгус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4070 родившихся, в том числе 58 многоплодных родов (двойни), и 4157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87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прирост составлял 201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ше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урильском, Ноглик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376 браков и 1854 развода против 2625 браков и 1848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7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август 2018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о 14257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60,1%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14835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77,6%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5742 человека.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1578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 사할린 주민 200 명 이상 <베레세니> 대회에 참가

주 민속예술 창작센터가 주최한 러시아 민요경연 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11개 지방자치체에서 출전하는 210명 이상의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일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음악축제도 민요나 러시아 노래를 여러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단 한 번도 배제한 적이 없고 콘서트를 멋지게 장식하기도 한다. 이를 소중히 생각해 주 민속 예술창작센터에서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고유 축제인 '특별한 초대'를 열 생각이었다. 독특한 점은 사할린 주민들 일상 속에 러시아 민요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예술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베레세니> 대회를 여는 것이다.

<루스키 제렘> 민요 앙상블의 단장 겸 대회 심사위원장인 이리나 멜니첸코바는 "러시아 민요에는 서민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며 공연의 의의를 밝혔다.

제1회 <베레세니> 주 러시아 민요대회의 대상에는 <돌리누쉬카>(돌린스크) 러시아 민요 앙상블이 차지, 1위에는 아나톨리 추프룬(트로이츠크예), <유빌 레이너>중앙구역문화관의 합동 보컬앙상블(퇴몴스코예), <미르>레크리에이션 문화센터의 러시아 민요합창단(포르나이스크)이 수상했다.

### Более 200 сахалинцев собрал конкурс "Вересень"

Конкурс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учрежденный областным центром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первые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личество конкурсантов — более 210 из 11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 убедило организаторов, что они на верном пути. Хотя, казалось бы, ни

один вок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не обходится без фольклора, русские песни растворены в программах любых концертов и являются их драгоценным украшением. Однако они достойны и "особого приглаше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аздника раз в два года, посчитали в ОЦНТ. Изюминка в том, что "Вересень" имеет целевую аудиторию, призвав только самодеятельных артистов, чтобы посмотреть, как живет эта самая русская песня внутри сахалинского народа.

— В русской песне отражается душа народа, и ничего лучше не придумать, — убежден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самбля "Русский терем",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нкурсного жюри Ирина Мельниченко.

Гран-при перв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Вересень" присужден народному ансамблю русской песни "Долинушка" (Долинск). Лауреатами I степени стали: Анатолий Цупрун (Троицкое); сводный вок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ЦРДК "Юбилейный" (Тымовское); русский народный хор КДЦ "Мир" (Поронайск).

### 사할린 학생들의 애니메이션이 <REC for kids> 국제아동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미하일 코스텐코 사할린 학생이 9월 19일부터-2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REC for kids> 국제아동영화제에 참가했다. 사할린에서 제작된 2편의 애니메이션이 국제심사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

제27회 <REC> 국제아동영화제에 36개국에서 6세-15세 아동들의 작품 700편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 중 20개국의 70편만이 대회 참가작품으로 확정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로 4편의 애니메이션을 선정했다. 2편은 1, 2위로 수상했고 나머지 2편은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중에 12세의 미샤가 대표한 <오스토로바(섬)> 제작소의 2 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사할린의 어린 제작진들의 작품과 그들의 후견인인 <다!(그림!)> 상트-페테르부르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높이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사라지는 집>, <너무 충만한 하루> 애니메이션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도 두려움이 없다고 평했다. 또한 아이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품질과 제작 기술을 별도로 높이 평가했다. (8면에 계속)

# 무술축제에서 한국 양주시 합기도협회와 사할린 무술협회 간 자매결연 체결

이미 홍보된 바와 같이 지난 3일 (수)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오스트로브(섬)>무술축제가 개최되었다.

<오스트로브>무술센터(관장 안수학)과 <오스트로브>무술협회(회장 천영곤)가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다. 작년에 이 행사에 수원시 태권도 선수들이 참가했고 이번 축제에는 대한민국 양주시 합기도협회 대표단(총 30명, 그중 선수 23명)이 참가했다. 축제는 태권도, 합기도, MMA, 킥복싱, 주짓수(유술) 선수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날 축제 참가자들을 사할린한국 교육원 김주환 원장, 양주시 합기도협회 정완석 회장, <오스트로브>무술협회 천영곤 회장 등이 환영하고 선수들에게 좋은 시범을 부탁했다.

축제 일환으로 이날 <오스트로브> 사할린주 무술협회와 양주시 합기도 협회 간 자매결연 협약식이 있었다.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양 단체는 양 지역으로 대표협회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유대강화를 통해 국제 무도스포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양 단체가 보유한 전문인력, 기술력,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양 단체의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양주시 합기도협회 정완석 회장은 "15년 전부터 사업으로 사할린으로 오가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제교류를 위해 양주시 합기도 팀을 데리고 방문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서 내년에 사할린 팀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한국 팀이 사할린에 또 한 번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관객들은 태권도, 합기도 팀들의 멋진 시범과 여러 무술의 격투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취재: 글/ 배순신, 사진/ 이예식)

#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전호의 계속)

둘째,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조항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포괄위임법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채류자격의 취득요건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제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5항), 이러한 관련조항들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는 국내 노동시장 등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재외동포채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법규정위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2014. 4. 24. 2012헌바412.)

이는 또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개별심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국가국적(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등에서 추가서류 제출국으로, 불법채류 다발국가로 중국, 러시아 등 20개국이 고시되었다(법무부고시 제2003-619호; 관보 2003년 12월 12일자 고시);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총 20개국).)의 재외동포를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과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등(시행규칙에 관한 사건으로는, 2011헌마474, 476병합(2014. 4. 24. 선고; 재외동포 사증 신청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건), 2011헌마480(2014. 4. 24. 선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내거소자(F-4) 국내 단순노무행위종 비취업 서약관련 헌법소원) 등이 있음)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 시의 첨부서류)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채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중 재외동포(F-4) 채류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주로 노무 일을 하는 동포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증발급 신청 시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채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수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채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가 첨부서류로 필요함이 추가되었다. 종래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 등의 증명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 조항은 삭제되고, 과거의 호적등본 등 별도의 서류로 과거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가서류 제출국으로, 불법채류 다발국가로 중국, 러시아 등 20개국이 고시되었다(법무부고시 제2003-619호; 관보 2003년 12월 12일자 고시)(정인섭,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정부의 대응검토, 23면.-년도 조사; 또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제

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등에 관한 사건으로는, 2011헌마474, 476병합(2014. 4. 24. 선고; 재외동포 사증 신청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건), 2011헌마480(2014. 4. 24. 선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내거소자(F-4) 국내 단순노무행위종 비취업 서약관련 헌법소원) 등이 있음.

법무부고시 제2003-619호; 관보 2003년 12월 12일자 고시는 2007. 12. 28.자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로 개정되고 총 22개국으로 변경된다.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2개국).

이 사건(2011헌마480)에서는, 중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재외동포채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등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할 경우, 채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자신은 재외동포채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불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이미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상태에서 채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5호 별표 5의2를 적용받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증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거나 신청하거나 그러한 서류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같은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09헌마35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이 사건을 각하시켰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채류자격변경허가 요건으로 이미 입국해 있는 사람에 대한 적용과 새로 신청하는 사람과의 적용조문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관련성이 부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인이 염려하였던 것은 채류자격변경허가 요건으로 채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이 채류자격변경허가의 경우에 불법채류자로 되어 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최종적으로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없는 데에 있는 것이다. 즉 이는 법무부 고시가 근거도 없는 고시를 발표함으로써 인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재외국민 보호의 무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에 불법채류자로 전락되는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다.

(계속)

# 고려인 전문 연구기관, 전북대학교 <고려인연구센터> 설립

(1면의 계속)

그리고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김 왜체슬라브 사무국장, 러시아 모스크바주 고려인협회 김 에두아르트 회장, 타지키스탄 고려인협회 김 빅토르 회장,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김 게르만 부회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한 발레리 고문,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김 발레리아 부회장, 중국 동포연합중앙회 김성학 총회장, 한국의 고려인협회 노 알렉산드르 회장 등 100 명이 넘는 한국인들과 고려인들이 참여하여 <고려인연구센터>의 설립을 축하했다.

한편, <고려인연구센터> 설립을 기념하여 "고려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9월 29일)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동포언론사들의 간담회(9월 30일)가 개최되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오스트리아 등에서 온 고려인 연구자들은 역사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에서의 고려인들의 정체성과, 현재 고려인들의 정체성 및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연구센터>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전주를 방문한 사람들은 전주의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홍웅호)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портсмен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одарили сахалинским зрителям захватывающе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фестивале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25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одарили сахалинским зрителям захватывающе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фестивале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3 октября гости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а сцен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мастерство пока еще молодого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вида единоборств — хапкидо.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я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м. Ежегодно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ирает сильнейших бойцов Сахали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хэквондисты из Сувона, в этот раз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посетила делегация хапкидо. Данный вид боевого искусства схож с айкидо и даже обозначается одним и тем же иероглифом. Вместе с тем хапкидо является более жестким стилем борьбы. Яр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ктикующий дан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 известный актер Стивен Сигал.



Напомним, в ок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сетил корейский мастер по хапкидо, обладатель восьмого дана Ким Бом Чоль. Он провел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школы грэпплинга и джиу-джитсу мастер-класс и призывал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вать этот стиль на острове.

—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 нас уже есть секция хапкидо, мы потихоньку её развиваем. Уверен, что выступление родоначальников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на фестивале заинтересует нашу молодежь и 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продвижению стиля на Сахалине,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Михаил Ан.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хапкидо из Янджу Джонг Ван Сок.

— Впервые я приехал на Сахалин 15 лет назад. С тех пор я много раз посещал ваш регион. Мне было приятно наблюдать за тем, как быстро он развивается. Сегодня мне выпала честь представить здесь команду по хапкидо. Несмотря на юный возраст, наши спортсмены показывают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в этом виде единоборств. Надеюсь, что их выступления вам понравятся, и у вас тоже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хапкидо, — обратился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иностранный гость.

Чтобы подкрепить слова делом Джонг Ван Сок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Алексей Чон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о заключении побратим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амках документа стороны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портивному и культурному обмену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После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должилось бескомпромиссными схватк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хэквондо, кикбоксинга и ММА. Кульминацией вечера ста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оединок по джиу-джитсу между сахалинцем Никитой Маликовым и спортсменом из Кореи О Ён Сек. По итогу напряженного боя победу одержал наш земляк. Победителям и призёрам были вручены кубки и медали.

Далее эстафету переняли юные мастера хапкид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технику разбивания досок, прыжки, сальто, а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приёмы самообороны. Яркое действо надолго запомнится спортсменам и простым зрителям.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 цент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 Учреждение объединяет в себе различные виды спорта — тхэквондо, карате, кикбоксинг, ММА и хапкидо.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я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пор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 Открыти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Корё сарам"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Чонбук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30 сентября, в г. Чондью (전주)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ё сарам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Чонбу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а церемонию открытия Центра, на конференцию и круглый стол большую группу ученых и редакторов корейских СМИ пригласил профессор Юн Сан Вон,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большой друг корё сарам, известный учены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Корё сарам"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дентификация корё сарам",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ученые из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Кыргызстана, Таджикистана, а в дискуссии после докладов были вовлечены и ученые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оклады, по существу, были интересные, так как была поднята тема чрезвычайно важная для корё сарам, с вечным вопросом — кто мы, куда мы идем?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доклады ученым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 всем регионам проживания корё сарам, они сами признавали, что круг исследований охвачен не полностью, что это всего лишь попытка дополнить научную базу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ё сарам и в этом смысле, как заметил профессор Бугай Н. Ф., конференция внесла свой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Модератором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 профессор Хонг Унг Хо, который очень точно сформулировал тезисы докладов. Его манера высокоинтеллектуала, бесспорн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идавал конференции особый оттенок мастерства, который не часто встретишь.

Бурная дискуссия случилась во время прений по завершении докладов. Споры и выступления в основном были вокруг двух тем, это — по назва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темы корё сарам в Корее.

По первой теме идут 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из-за того,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раждане-бизнесмены, организовав сво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назвали е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также, как и общественную корейскую организацию, существующую с давних пор, и требуют изменить название иско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ое наименование).

Вторая тема не таит в себе никаких споров по названию, разве что профессор Хан В. С., в шуточной форме, и то вне рамок дискуссии, а в кулуарах, определил название корё сарам в Корею — "корейские корейцы". Но за шуткой стоит огромная проблема корейцев в Корею. Нас там очень много, по данным общества "Корё сарам" города Ансана, в Корею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65 000 человек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из всех стран СНГ. Эта цифра несколько обескуражила ученых, потому чт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есколько отстают от реалий. Число корё сарам в Корею стремительно нарастает с каждым днем. Раньше приезжали одиночки на заработки, затем стали приезжать семейные пары, затем дети с бабушками и дедушками. Писатель Михаил Пак в разговоре со мной назвал это "третьим исходом" — в самом определении чувствуется трагедия, которую я тоже почувствовал. Мы приезжаем в Корею без знания языка, из-за чего нас берут на самую не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работу, дети еще не выучили корейский,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бывают и русский,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еще несовершенн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м. Проблем гораздо больше, чем я мог представить, сидя в Ташкенте. Обо всем этом говорили во время дискуссии.



В Ансане действует общество "Корё сарам", нелегкую роль лидера которой взял на себя Александр Ногай. Общество пытается решать возникающие вопросы, какие-то решает собственными силами, но им одним не решить общие задачи. М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то всех корё сарам в Корею должна представлять одн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 которой бы прислушивалась власть — нас много и, если будем едины, нас услышат, с нами будут считаться.

Круглый стол редакторов вел Валентин Чен,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й во вступительном слове рассказал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их СМИ в бывшем Союзе и их становлении после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тран СНГ. Редакторы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проблема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планами на будущее. Круглый стол редакторов примечателен живым общением, известно, что только живое общение дает опыт и знание, которые нигде не приобретешь.

После полного дня конференции 29-го сентября 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30-го сентября, в час дн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Центра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рё сарам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Чонбук.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Чонбук считается втор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Южной Кореи и входит в топ-10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траны.

Церемония отличалась от всех виденных мной ранее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церемонию провели по старинной конфуцианской традиции с подношениями духу Знаний, с земными поклонами, с возвещением о праведной работе перед накрытым столом по строгим старинным правилам. Первым устроитель церемонии пригласил профессора Юн Сан Вона, который и подношение сделал, и отбил земной поклон, и возвестил духу Знаний о своей праведной работе. Вторым пригласил ректо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господина Ли Нам Хо, который к моему удивлению и восторгу тоже совершил земной поклон и преподнес чашку "суп" духу Знаний. Затем, по ранжиру, последовали другие почетные гости и только после всех их земных поклонов, церемония продолжилась в обычном порядке, с приветствиями от ректора и других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Впечатление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оставила неизгладимое. Встреча с друзьями была радостной. Спасибо профессору Юн Сан Вону и профессору Хонг Унг Хо, организовавшим мероприятие.

**Владислав ХАН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Фото: Виктория БЯ

### ОБЪЯВЛ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детей от 5-ти лет и старше (1 - 3 классы)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творчества.

Занятия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с 12.00 до 13.30.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ак Галина Михайловна  
Тел: 8 900 433 4501.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бсудил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итоги работы в 2018 году

В 2018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у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исполнение обязательств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15 млрд. рублей.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сходования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обсудили на очередной коллег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сентябре. Заседание прове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Е.Н.Касьянова.

В докладе об итогах работы отрасли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ланиров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и финансов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Я.В. Кормщико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проделана значительная работа. Объем полугодов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17 года увеличился более чем на 1 млрд.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улучшился показатель исполнения плановых назначений с 38,2% до 44,1%.

За 6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оциальная помощь предоставлена 9545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малоимущим одиноко проживающим гражданам) на 101,9 млн. руб., в том числе на основании социального контракта – 372 семьям на 24 млн. рублей.

Ежеквартальную меру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виде адресной продуктовой корзины получило 15632 семьи на 68,7 млн. рублей.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олее 60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чти 15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проездные по городу, более 10 тысячам граждан выдано 324 тыс. талонов на проезд до раз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области. На эти цели израсходовано 77 млн. рублей.

В этом году ежегодная выплата ко Дню Победы для детей войны увеличилась в 2 раза и составила 5000 рублей. В целом данную выплату в этом году получили почти 24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на сумму 149,3 млн. рублей.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ен размер ежекварт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выплаты за стаж работы в условиях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и приравненных к ним местностях с одной до пяти тысяч.

В 1 полугодии отдохнули в санатории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910 пенсионеров, 276 человек из категории «дети войны» получили компенсацию з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обретенные путевки 7,8 млн. рублей.

На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семьи и детей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направлено 2,4 млрд.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14-2020 годы» министерству в 2018 году предусмотрен 101 млн. рублей.

На адаптацию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также направлено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6,7 млн. рублей.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работы в 20 учреждениях (это 28 объектов).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 ближайший период оста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выполнения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по которым предусмотрены 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 Более 200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едиаслет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торой очной сессии медиашкол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брали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Журналисты, редакторы, блогеры, сотрудники пресс-служб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могли посетить десятки лекций,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тренингов.

В качестве спикеров выступили ведущие эксперты в област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едеральной власти – в частности, минист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заместитель шеф-редактора газеты «Коммерсантъ» Глеб Черкасов, преподаватель «Академии новостей ТАСС» Глеб Брянский.

Заместитель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Григорий Куранов провел мастер-класс «Обеспеч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 обла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власти и СМИ». Основопологающим понятием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является патриотизм. По его мнению, это не чувство, а, прежде всего, потребность гордиться своей страной и ее достижениями.

Результаты соц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неотделимым от патриотизма является понятие «духовность». Без этого есть риск возникновения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х настроений.

– Когда человек не знает, чем ему гордиться, а потребность такая есть, он начинает кичиться тем единственным, что у него есть от рождения – принадлежностью к нации, – отметил Григорий Куранов. – Главной совместной задачей государства и СМИ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своего рода «матрицы духовности и патриотизма». 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потребность людей удовлетворяется информацией о реальных, а не придуманных достижениях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утверждают ее позитивный имидж на мировом уровне. Но столь же важно постоян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людей о том,

что позволяет, например, региону стать позитивным примером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а сельскому поселению – на уровне региона.

Также на очной сессии медиашкол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журналистам рассказали, как выстра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источниками информации и вести диалог со спикерами, как не допустить типичные правовые ошибки в работе журналиста, как эффе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 Очень полезен был мастер-класс медиа-юриста Галины Антонец по авторскому праву. Ежедневно на работе сталкиваешься с публикацией фотографий, цитированием, и нужно держать руку на пульсе, чтобы не получить большой штраф, – поделилась ученица медиашкол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портер», сахалинский журналист Любовь Кондрашова. – Медиашкола – это хороша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встряска, избавление от шаблонов. Кроме того,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контактов,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менитыми российскими журналистами и молодыми, энергич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Обучение в медиашколе включает курс вебинаров, которые читают эксперты из ведущих федеральных СМИ и вузов, и очных сессий. Первый сле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портеров состоялся в июн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торой – в сентяб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еще два.

Полный курс в медиашколе длится около года и должен завершиться в марте. По окончании слушател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ы о повышении квалификации.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ят 55 журналистов с опытом работы не более трех лет, студенты профильных вузов и сотрудники пресс-служб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Чтобы стать ученик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портера»,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ройти два этапа отбора: конкурс портфолио и творческое задание.

Для журналист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пресс-служб, не зачисленных на постоянное обучение в медиашкол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щать открытую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очных сессиях. Количество свободных слушателей растет от одного медиаслета к другому, так как лекци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зволяют повыс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выки и получить ценные знания.

Проект медиашколы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с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Цел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портера» состоит в подготовке сообществ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способных обеспечивать создание качествен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контента о социальн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ивают меры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наркопреступлений

В регионе обсудили результаты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Заседание антинарко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прошл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ы Щербиной.

– В это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наркопреступлений, совершенных на объектах транспорта, снизилось.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акцент в работе был сделан на выявлении организован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Это гораздо больший объем работ чем обнаружение отдельных нарушителей закона. Наши сотрудники выезжали в другие субъе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целью задержания преступников и недопущения ввоза на Сахалин партий запрещенных веществ, –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Сахалинского линейного отдела МВД России на транспорте Сергей Кочнев.

Всего за 8 месяцев 2018 года по линии незаконного оборота наркоти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линейном отделе МВД России на транспорт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54 преступления, из них тяжких и особо тяжких – 32, в крупном, особо крупном размере – 28, преступлений, совершенных с целью сбыта – 13, в поездах выявлено 1 преступление, на вокзале – 1 преступление. Расследовано – 32. По оперативным данным раскрыто 17 преступлений. За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сотрудниками транспортной полиции из незаконного оборота изъято 1382 грамма нарко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Отметим, что в течени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е совершено ни одного наркопреступления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годня там реализуется комплекс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я. Одним из пунктов является модернизация систем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приобретено и установлено 63 камер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теперь их – около 200.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комплекс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установлена система распознавания лиц для контроля входа пассажиро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в здание аэровокзала и контроля прилетающих пассажиров. Данные системы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передают видеосигнал в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 Сахалинский линейный отдел МВД России на транспорте.

Аэропорт также задействует двух инспекторов кинолог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линейного отдела МВД России

на транспорте со служебно-розыскными собаками и привлекает кинологовую службу УФСИН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осмотра. Периодически привлекаются сотрудники ОМОН управления Росгвард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ления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х поставок наркотиков с материка – это Владивосток, Благовещенск, Новосибирск.

– Если подводить итоги, то сделано немало: это и новые средства технической оснащенности, камеры,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досмотра,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устойчивые показатели, реализуются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последствий, связанных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наркотиков, –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 Спаси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 это уже результат. И успехов мы достигаем только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Нам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эту работу еще более плодотворной.

## Всероссийскую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йти в Интернете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роб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перед масштабно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ей,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в 2020 году. Заполнить переписной лист можно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Как сообщ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еры Щербиной, в качестве пилотного район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обной перепис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брали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акции, необязательно дожидаться переписчика. До 10 октября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интернет-перепись.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подтвержденную учетную запись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Попов.

На заполнение анкеты потребуется всего 5–7 минут. После человек получит код подтверждения участия в перепис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или SMS. В Интернете можно заполнить анкеты за всех членов семьи.

– Онлайн-перепись – одна из новейших тенденций в мировой статистик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цифровых тенденций в пробной переписи 2018 года позволит выявить, скольк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удут готов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 нововведением в 2020 году, – отметила Вера Щербина.

По итогам пробной переписи будет составлен рейтинг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ые наиболее успешно ведут работу по цифров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 Проживающ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доме-интернате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получили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В учреждении стартовал грантовый проект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 доступный спорт». Теперь пожилые люди и инвалиды могут регулярно заниматься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ой, теннисом, волейболом или аэрохоккеем, шахматами, нардами, джакколо, а также дыхательной гимнастикой Цигун.

Всем желающим занимать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специалисты учреждения помогают подобрать оптимальный режим тренировок.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уются вертикальный велотренажер, степпер и массажная дорожка.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а мероприятий Кристины Энто, зарядка и спортивные упражнения приносят большую пользу не только физическому здоровью подопечных дома-интерната, но и благотворно сказываются на их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м состоянии, повышают самооценку.

Мария Михайловна Аксенова – одна из самых возрастных активных участниц мероприятий дома-интерната. В свои 86 лет он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занимается на велотренажере, увлеклась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ой.

– Проект очень полезный, лично мне он подарил вторую молодость. После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чувствую себя прекрасно, – поделилась сахалинка.

Ране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 доме-интернате состоялась спартакиада по 8 видам спорта. Как отмечает руководство социа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вать число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 Сегод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доме-интернате, как и во всех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где проживают пожилые люди, созданы хорошие условия для занятий физкультурой, творчеством и другими полезными делами. Оборудованы тренажерные залы, комнаты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разгрузки,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Также повсеместно у нас используются различны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методики,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профильного отдел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Елена Кобец. – Ежегодно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 внебюджетных источников происходит развит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учреждений, оснащение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внедрение новых социальных методик. Эти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позволяют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ывать одну из самых главных задач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 обеспечение активной, долгой и достойн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한식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모듬전

비오는 날에는 고소하게 기름진 전이 먹고 싶어진다. 꼭 비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 음식은 이웃 나라들에 비해 튀김보다는 지지는 것이 많다. 육류나 생선 채소 등의 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쌀가루나 밀가루 또는 달걀을 풀어 옷을 입힌 다음 번철에 기름을 둘러 지져내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 전이라 부른다. 고유한 이름은 전유화로 전유어라 읽고 속어로는 '전야'라고 소통되다가 그냥 전이 됐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또 전을 제사상에 올렸을 때는 간남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그 이름의 변천과정만 보아도 전의 유래가 꽤나 오랜 것을 알 수 있다. 전은 그 소재에 따라 대략 4~5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육류로 제육전, 간전, 쇠고기전 등이 있다. 생선류도 북어와 대구전, 도미전, 민어전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거기에 폐류인 대합과 굴전 등이 포함된다. 채소류에 있어서도 가장 흔한 애호박전과 꽃고추전을 비롯해 두릅전, 버섯전, 파전 등이 있다. 좀 더 특색있는 화전류로 봄의 진달래 화전, 가



을에는 국화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전을 즐겨온 것은 그만큼 많은 재료가 계절에 따라 풍성하게 나고 궁중에서부터 서민들의 일상식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차림에 폭 넓게 이용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어느 것이든 따끈따끈하고 노릇노릇하게 금방 익혀낸 전은 고소한 양념장에 살짝 찍어내 먹으면 그 깊은 맛이 비할 데 없이 좋다.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이른 봄, 간식이나 안주감으로 또는 밑반찬으로도 그만이다.

온갖 재료를 밀가루나 녹말가루를 입혀 부쳐낼 수 있는 전. 그 전을 상황에 따라 색깔을 맞춰 담아낸 것이 모듬전이다. (코리아넷)

### [우리말로 깨달다]

## 요 빼고 말해 보기

어미 <-오>와 <-요>를 구별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오>와 <이요>를 구별할 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문장을 끝맺을 때는 <이오>라고 쓰고, 연결할 때는 <이요>라고 쓴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책이오.' 라고 하여 문장을 맺으면 <이오>가 맞고,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라고 할 때는 <요>가 맞다고 설명하면 된다. 쉽지 않은가?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여기에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오>를 끝맺을 때 사용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오>라고 써서 틀릴까? 가장 많이 틀리는 예는 '어서 오십시오.' 가 아닐까 한다. 앞에서 설명한 이오와 이요의 예를 보면 틀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발음이다. <이> 모음 다음에 <오>가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오>라는 형태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발음으로 구별하길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서 오십시오>의 경우는 하십시오 체의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라고 써야 한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나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오체 문장은 요즘 말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글 쓸 때의 명령에서 사용한다고 기억하면 될 듯하다. 앞에서 예로 들은 <이것은 책이오.>라는 말도 어색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오>의 경우는 실제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오>와 <이요>의 구별은 거의 필요 없고, 대부분 연결의 <이요>라고 기억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하십시오/하십시오/마시오/마십시오> 같은 예를 기억해 두면 오라고 쓸 자리도 대부분 알게 된다. 즉, <오>라고 쓰는 경우는 위의 예들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된다는 말이다.

한편 오와 요를 혼동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해요체이다. 우리말의 비격식체에는 해체와 해요체가 있다. 해체는 친근한 반말의 말투이고, 해요체는 친근한 높임말의 말투이다. 해체를 반말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말과는 차이가 있다. 보통 반말은윗사람에게 하면 안 되지만 해체는 친근한 윗사람에게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 형, 누나와 가까운 선배에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해체를 반말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나는 의문이 있다.

자 그럼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문장을 맺을 때는 오라고 쓰고 연결할 때는 요라고 쓴다고 했는데 당장 해요체라는 예외가 생기지 않았는가? 해요체 문장은 당연히 <오>로 끝나야 한다. 간단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복잡해지지 않았는가? 문법과 맞춤법이 어렵다는 생각이 다시 들 것이다. 그런데 해요의 <오>는 하시오, 마시오의 <오>와는 차이가 있다.

<오>를 빼고도 말이 되면 <요>를 쓰고, 말이 안 되면 <오>를 쓴다고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오>의 경우에는 요를 빼도 <밥을 먹어>로 말이 된다. 반면에 <들어가자 마시오>는 요를 빼면 <들어가자 마시>로 이상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요를 써야 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 차례이다. 그렇다면 하세요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세요도 해요체이다. 하지만 하세요의 경우도 <오>를 빼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세요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답은 하세요가 <하셔오>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세요는 하셔오에서 변한 말이다. 하셔오의 경우는 <오>를 빼도 말이 된다. 따라서 해요체라는 의미이다. <하셔!>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된다. 여기에 <오>를 붙여 하셔오가 된 것이다. 문장 종결의 오와 요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게 되면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이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8 г.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 октября 2018 г. с 14:00 до 16:00**

Адрес: пр. Мира, 83 а,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актовый зал)

В программу ярмарки входят мастер-классы:

- каллиграфия: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хангыль (роспись на веере);
- традиционная бумага ханджи (изготовление бумажного фонарика);
- традиционная бумага ханджи (изготовление шкатулки);
- традиционный фонарик чхонсачхорон;
- женское украшение норигэ;
- роспись по ткани (сумк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традиционных игр);
- оригами (открытки на традиционную тематику);
-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нструменты;
-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ханбок;
- национальный спорт тхэквондо;
- соврем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танцы K-POP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О  
Контактный адрес: sakhalin\_k-pop@mail.ru  
Телефон 42-40-87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 의해 시적이고 짙막하게 그려진 애니메이션은 훌륭하다."라는 글이 <REC for kids> 국제영화제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 Мультфильмы сахалинцев получили особое признание жюр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етск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REC for kids

Сахалинский школьник Михаил Костенко с 19 по 22 сентября находился в Берлин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детском фестивале REC for kids

Два мультфильма, привезенные с Сахалина, получили особое призн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жюри.

На 27-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REC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700 фильмов детей 6-15 лет из 36 стран. Но к конкурсу отобрали только 70 фильмов из 20 стран. Жюри по итогам выделило только 4 мультфильма. Два из них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за первое и второе место, еще два отметили особым вниманием жюри. Выделены были две работы мастерской «Острова»,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л 12-летний Миша.

Жюри высоко оценило работу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мультипликаторов и их кураторов – педагогов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студии «Да!». Эксперты отметили, что в мультфильмах «Пропавший дом» и «Слишком насыщенный день» дети не боятся раскрывать свои мысли и получать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их интересуют. Также особо отметили качество мультфильмов и технику, в которой они были созданы.

«Прекрасно нарисованные поэтические короткие мультфильмы для детей и созданные детьми», - так написа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REC for kids.

##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원들, '세계 심장의 날' 기념

주 중심의 제16호 학교를 거점으로 교원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장 검진> 검진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사할린주건강검진센터의 전문 의료진들은 희망자들에게 초음파 및 기초검진과 심장박동 측정을 실시했다. 검진결과

를 토대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활방식,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법,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법, 어떤 식으로 자신의 체질을 증진시켜야 하는지를 조언했다.

활동교실에서는 심장지 사고 시 첫 응급조치를 하는 법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행사장에서는 운동 경기도 진행되었고, 심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추천된 요리들의 경연도 열렸다.

이외에도 헬스클럽과 스포츠 용구 이용권을 상품으로 하는 추첨이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건강검진센터 센터장인 엘레나 스톨라로바는 이와 같은 검진행사는 매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0월에는 '세계 뇌졸중과 투쟁의 날'을 맞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 11월에는 '세계 당뇨병과 투쟁의 날'을 즈음해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дагоги отметили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сердц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базе 16 школы прошла оздоровительная акция. "Сердце под контролем",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00 учителей.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тили профилактике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Специалист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проводили скрининг, проверяли параметры работы сердца у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основании исследований давали рекомендации — как жить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охранять и укреплять здоровье, правильно питаться и какими методами укрепить свой организм.

Был проведен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оказанию пер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при остановке сердца. Параллельно на площадке устроили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а также кулинарный конкурс, в котором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блюда, укрепляющие и сохраняющие сердечную мышцу. Кроме того,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лотерея, призами в которой стали абонементы в спортзалы и спортивный инвентарь.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Елена Столярова, подобны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каждый месяц. Так, например, в октябре состоится ак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борьбы с инсультом. В ноябр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ат к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борьбы с диабе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

### <2018 한국김치 축제>

일시: 2018년 10월 6일(토) 10:30

장소: 한인문화센터 대강당  
문의 사항: 사할린한국교육원 (연락처: 50-56-96)

В честь 25-лет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2018>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6 октября 2018(сб), 10:30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актовый зал), пр. Мира 83-а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о тел: 50-56-96

한국 인천으로 영주귀국하신 최화자씨가 지난 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병환끝에 향년 74세로 사망하였음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1964년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전문학교 제9회 졸업생 일동으로부터.

реклама

bilet.sakh.com

#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